

동양·ABL 빈자리 ‘눈독’… 라이나·메트라이프, 시장확보 올인

외국계 생보사 지각변동

우리금융서 동양·ABL생명 인수
라이나 상반기 순익 2627억 40% ↑
 성과에 조지는 대표이사 연임 성공
메트라이프 1분기 지급여력 356%
 “5년내 생보업계 톱5 진입할 것”



동양생명, ABL생명 사옥.



/각사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면서 외국계 보험사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순이익을 합쳐 2000억원이 넘는 두 보험사를 우리금융이 사들이면 외국계 보험사 순위 자리 주인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약 1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중국다자보

험그룹 산하의 계열사다. 두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1684억원, 406억원을 기록했다. 합쳐서 2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국내 보험사 가운데 NH농협생명(1639억원)보다 많은 순익 규모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우리금융으로의 피인수합병을 앞두고면서 두 보험사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타 외국계 생

보보험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두 보험사를 제외하고 국내 보험시장에 남은 외국계 생보사는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BN파리비카디프생명 등이 있다.

그중 라이나생명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으로 2627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한 수치다. 라이나생명의 순익은 2021년 2331억원, 2022년 3631

억원, 2023년 4640억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조지는 라이나생명 대표이사는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라이나생명 CEO로 선임된 후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나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지는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래 꾸준히 순이익을 증가시켜 생명보험업계 상위권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및 업계 최상위의 총자산이익률(ROA)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상위 외국계 보험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349억원, 2021년 1694억원, 2022년 360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356.3%로 생보업계 1위를 기록

한 데 이어 상반기에는 더 개선된 358.9%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 300%를 넘긴 곳은 NH농협생명(373.4%), 메트라이프생명(358.9%), 라이나생명(342.9%) 등이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7월 연임을 확정했다. 송 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1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7월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선 3연임이 확정돼 오는 2027년까지 메트라이프생명을 이끈다.

앞서 송 사장은 지난 6월 5년 내에 생명보험업계 톱(TOP)5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송 사장은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미 재무건전성 등로는 업계 최고 수준이며 많은 부분에서 TOP5 수준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하지만 5년 후에는 대부분의 중요 지표들이 모두 TOP5 안에 들고 대중들이 한국 대표 5대 생보사로 메트라이프생명을 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휘발유 값 오르나...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짐

정부, 유류세 정상화 의지 내비쳐
 기재부, 이번주 중 연장여부 발표

중동 지역 분쟁과는 별도로 국내 휘발유 값이 뚝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민생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하 조치를 당장 종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 할인 폭만 축소해도 휘발유 가격은 바로

오르게 된다. 현재 인하율(7~10월 적용)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지난 1~6월 상반기(휘발유 25%, 경유 37%)에 비해 이미 일부 축소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시행·연장돼 왔다.

이번 주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592.05원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휘발유값은 이달 초에 비해 ℓ당 10원 가까이 올랐다. 인하 폭이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될 시 1600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만약 5%포인트(p) 내리면 가격은 ℓ당 40원가량 상승한다. 또 10%p 조정 시 16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려동물 치료제 개발 빠르고 비용은 낮아

>> 1면 ‘암·치매·아토피 등...’서 계속

대용제약의 계열사인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용팻은 대용제약의 ‘우루사’를 개량해 반려동물 간기능 개선제 ‘유디씨에이정(UDCA정)’을 선보였다. 대용제약은 스테디셀러인 ‘베아제’와 ‘임팩타민’을 활용, 동물용 소화효소제 ‘베아제펫’과 반려동물용 영양제인 ‘임팩타민펫’도 출시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대표제품 ‘인사돌플러스’의 주성분을 활용, 국내 첫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 정’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 신약 개발의 일석이조 효과
 기업들이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 앞

다뒀던 터전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시장성 때문이다.

반려동물 치료제의 개발 기간이 사람 치료제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낮다는 것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거치는 반려동물용 신약은 개발 과정이 인체용 의약품보다 훨씬 단순하고 쉬운 편인 반면,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캐시카우가 되기 때문에 인체용 의약품 개발 비용을 벌 수 있고, 동물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석이조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